

#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의 상담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and Academic Stress of Novice Elderly Female Counselors

김진옥, 정문주  
한국가톨릭상담심리교육원/한양대학교

Jin-Ok Kim(naturalkjo@hanmail.net), Moon-Joo Cheong(sasayayoo@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의 상담과정과 상담학습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탐색이다. 연구 참여자는 종교기관, 각 상담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거나 학습하고 있는 중·노년층 여성참여자로서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 각 개인에게 먼저 기술을 통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일대일 개인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을 위해서 CQR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들은 학업과 상담 두 가지 영역에서 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영역에서는 학업적 어려움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증상, 내용, 가중 요인의 세 가지 핵심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담영역에 있어서는 상담 실제에서의 스트레스가 내담자, 슈퍼비전, 상담자 역량, 사회 환경적 요인의 네 가지 핵심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 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영역을 구체화하여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이 향후 전문 상담자로서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이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안 점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중·노년층 | 여성초심상담자 | 스트레스 | 합의적 질적연구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stress experienced in counseling and counseling of elderly female novice counselors and, through this, to provid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can help counselors of elderly to continue their counseling. The study participants interviewed 157 elderly women who were studying at religious institutions, counseling graduate schools, and general graduate schools. In the data collection, each individual participated in a one - to - one interview for 3 months from May to August, 2017. To analyze this material, it was used CQR method, as one of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wo factors of stress in the academic and counseling domains. In academic stress, academic stress symptoms, content, and weighting factors were separated into three key factors. In counseling stress, four core factors were identified: client, supervision, counselor's abilit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elderly novice counselors in the elderly have specified the areas of stress experienced by them and provided them with helpful information. Then,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Elderly · Old Aged | Novice Women Counselor | Stress |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7년 KOSIS 국가통계포털의 국내 통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에는 65세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는 초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 2017년 평균 퇴직연령 55세를 감안했을 때, 장년이상의 유희 노동력은 국민인구의 2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에 의하면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 취업대상은 주로 중장년층 남성에게 한정되어 있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는 경력단절 이후 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남성에게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3]. 그러나 이런 결과와는 달리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은 여성이 대다수이다. 즉 평생교육의 경우는 주로 취업 교육이 아닌 ‘취미생활’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인문학적 소양의 교육’ 혹은 ‘소상공업’ 분야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4].

중·노년층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과 가깝게 아니라고 사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보살핌을 나누기를 희망한다[5]. 여성들의 경우 중년이 넘어가면서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의 퇴직 이후 본인에게 집중하면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이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6]. 또한 노년층 여성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이면서 자신의 삶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7].

노년기의 삶은 그들이 삶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8]. 특히 Erickson[9]는 장년기는 성취해야 할 긍정적인 과업으로 생산성에 몰입하며, 이때의 생산성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타인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생산성에 대한 발달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협력하고 봉사하는 사회적 관심으로 그들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년기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반성하며 자아통합을 이루어가는 시기이다. 이때 지혜를 가지

고 자신의 성취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희망하게 된다.

이러한 중·노년층의 발달과업은 이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인 의무 등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게 하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특히 중·노년층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변을 인식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10]. 그리고 이보람, 이정화[11]에 의하면 중년이상의 연령대의 여성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원에서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와 상담과 같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남은 생을 투자하는 직업으로서 상담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이란 과목은 단기간 내에 학습이 되고 바로 상담 장면으로 투입이 되어 성공과 실패를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도구가 되어 자신의 삶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직업으로서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다[12]. 상담자라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과 더불어 실습을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노년층에서 상담을 시작한 사람들은 청년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는 직업은 일반적 직업군과는 다르게 소진을 빠르게 경험하는 직업이다[13]. 따라서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들은 실질적으로 학업 뿐 아니라, 상담 외의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적 활동, 배우자와 가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생활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년층에 비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장기간 학습을 하기에는 신체적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년부터 시작하여 노년층에서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만 학도들의 증가와 더불어 만 학도들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14][15]. 이는 상담자 양성과정이 2009년 기준 온라인 사이버 대학에 개설된 과정을 포함 4년제 과정이 28개, 2-3년제 과정이 8개로 총 36개로 등록이 되었던 것이 현 2017년 기준 각 상담학과와 관련된 개설 과목이 44.0%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16][17].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실제적으로 상담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상담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오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8]. 이들이 상담 교육과정을 끝까지 완수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소진들에 대한 극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19]. 그러나 이들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상담 중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이 진행되어 중·노년층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상담을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담을 공부하는 중·노년층들이 상담학습과 실습 과정에서 나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10]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노년층의 스트레스라는 한정적 요인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면접한 내용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한 합의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이 인지하는 상담 학업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이 인지하는 상담실제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중·노년기 여성

인간의 기대 수명이 짧았던 19세기에는 중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22]. 그러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기로 인식하게 되면서 중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중년기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조차 중년기 범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6][11].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년기 범주에 관하여 김애순[23]은 35-60세로, 조진희[24]는 40-60세로 규정하였다. 또한, 생애 발달단계를 심리사회적 발달과정과 연결한 Erikson[25]에 의하면 인간은 일생을 통해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겪는데, 그 중 7번째 단계인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로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생산성이라 하며 생산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두는 자아 침체에 빠진다고 하였다.

더불어 노년기는 통합 대 절망의 시기로서 인간 생애에 마지막 단계이며,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일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아 통합 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자아통합감과 삶의 수용성은 자신의 삶이 곧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과 자아통합감부분에 있어서 중·노년기의 남·녀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26]. 중년기의 남성들은 자기 개발과 대인관계의 확장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완성하고 외부 활동을 통한 생산성 확보를 경험한 이후 노년기에는 내부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아 통합에 집중한다. 그러나 중년의 여성들은 점진적으로 외부적 사회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면서 생산성을 확보하고 노년기에 이르러 외부 세계를 통한 자아 통합을 만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24][26]. 이렇게 중·노년기의 여성들의 이타적인 사회 활동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 성숙된 자아로서 스스로 자아통합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27]. 따라서 중년기의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성은 중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노년기 여성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아로 자신을 수용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곧 자아 통합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28]. 이와 맥락을 같이하며 기존 중년기 여성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생산성은 곧 사회적인 참여와 일에 관련하는 것이며[29][30] 이러한 생산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중년기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교육[31]을 통한 재취업, 진로에 관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달 단계상 노년기 여성에 대한 연구는 중년기 여성에 비해 미흡하다[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범주를 임현순, 주은선[33]이 제시한 40세에서 65세의 여성으로서 정의하였으며,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과 기초 노령연금법을 참고하여 65세 이상을 노년기 범주로 정의하였다.

### 초심상담자

본 연구에서는 초심 상담자를 3년 미만의 상담경력에 갖고 있는 상담자로 정의한 선행연구[34]를 근거로 하여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상담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석사과정과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련시간으로 간주하였으며, 석사 졸업 이후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로 제한하였다.

### 초심상담자의 어려움

한 명의 상담자는 초심상담자에서부터 상담전문가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상담자들은 전문성과 인간적 자질 향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다[35][36]. 각 발달 단계별 어려움 중, 초심상담자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 발달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 전문가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만의 상담 유형과 상담의 특성이 정립된 후이기 때문에, 이시기에 상담 전문가의 단점이나 결점을 수정, 보완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초심상담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초심상담자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상담자로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상담자로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초심상담자가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고 상담자로서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성숙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37]. Skovholt 와 Ronnestad[38]에 의하면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상담에서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수행불안, 두 번째는 지도감독자 즉 수퍼바이저의 평가

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내담자와의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 네 번째는 상담자로서의 자신과 일상의 자신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호함으로 인한 어려움, 다섯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의 어려움, 여섯 번째는 내담자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높은 기대, 마지막으로는 긍정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지자원의 부재였다. 국내에서도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외부적으로는 상담자라는 직업에 대한 열악한 지위체계가 낮은 보수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이었다[39]. 특히 상담 전문가가 아닌 초심상담자나 혹은 상담심리사 2급을 소지한 경우에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드러났다[35][36]. 또한 내부적으로 내담자의 태도, 직접적으로 상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리고 조기종결을 원할 때, 초심상담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더불어 초심상담자들은 비협조적인 내담자들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역전이를 경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 또한 수퍼비전 시에 경험하게 되는 수퍼바이저의 부정적 평가와 태도는 초심상담자들에게 상담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상담지속에 대한 회의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43]. 이렇듯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상담 외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상담 수퍼비전 시 평가에 의한 스트레스 세부분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였다. 중·노년층의 초심 상담자들, 즉 상담을 하다 상담공부를 시작했거나, 자녀교육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상담을 시작한 초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초심상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하다[15][16][19][41]. 특히 중·노년층들의 경우 신체적 변화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청년기 초심상담자가 경험하는 영역과는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를 구분하여 증가하고 있는 중·노년층이상의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상담이

라는 분야에서 경험하는 교육, 실습 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이들이 상담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40]. 이에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을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후 어려움을 연구자들과 감수자들과의 합의 이후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스트레스’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들이 표현한 ‘스트레스’의 정의는 Lazarus[44]의 정의와 같이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원과 가톨릭 영성교육원, 기독교 평생 교육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각 대학 상담실, 여성 가족부 산하 청소년 상담실과,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설 상담기관, 종교기관 상담실에서 시간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157명의 여성 상담자들이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최소 48세에서 최대 68세로 나타났다. 상담 경력은 3개월에서 교육기관 졸업 후 3년 미만 이었으며, 주당 근무 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30시간이었다. 연구자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은 종교기관 상담실이었으며 60명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상담실에서 시간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5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건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44명으로서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이들은 모두 상담을 공부하고 있거나 인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심 상담자들이었다. 또한 시간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종교기관과 개인 상담실에서 중복하여 근무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30.5%를 차지한 48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정보(N=157)

측정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40~49	3	1.9(%)
	50~59	78	49.6(%)
	60~69	76	48.4(%)
최종학력	전체	157	100(%)
	대졸	89	56.6(%)
	대학원이상	68	43.3(%)
결혼여부	전체	157	100(%)
	미혼	3	5.7(%)
	기혼	150	95.5(%)
	기타	4	2.5(%)
기관	전체	157	100(%)
	종교기관	60	38.2(%)
	개인상담실	52	33.1(%)
	복지기관	44	28.0(%)
	전체	157	100(%)

## 2. 측정도구

### 1) 초심상담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서술 기록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제공된 질문지에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묻는 설문과 함께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상담공부를 하면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임상에서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초심 상담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면담 질문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기록을 중심으로 이차 면담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표 2. 질문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할 때가 있다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쫓긴다.	“어떤 시간에 쫓기는 것인가?”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즐음이 쏟아진다.	“즐음이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심리적인 것인가? 신체적인 것인가?” “상담 장면과 학습장면에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후회가 든다.	“무엇에 대한 후회인가?” “언제 그런 생각(느낌)이 드는가?”
자괴감이 든다.	“무엇(누구)에 대한 자괴감인가?” “언제 그런 생각(느낌)이 드는가?”
내가 뭐하나 싶다	“무슨 의미인가?”

공부해야 하는데 다른 할 일들이 많다	"다른 할 일은 무엇인가?"
기대만큼 안 될 때	"어떤 기대인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력이 나쁘다	"무슨 의미 인가?"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위의 기술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157명의 면접 자료와 서술 자료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적 분석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영역 내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한적인 정보가 보고되는 양적 접근보다는 심도 있는 탐색이 가능한 질적 접근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45]를 사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 조사와 면접 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설문 기술지는 2017년 4월에 실시하였다. 이후 기초 작성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발적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라, 정남운[46]이 제시한 감사자와 평정자의 감수 절차에 따랐다. 구체적으로, 상담전문가이자 상담 교수인 1인과 노인 상담관련 교수이며 상담전문가인 1인, 교육학 박사 1인 등 총 3인이 평정 팀이 되었다, 감사자는 심리측정 교수 1인과 상담관련 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료 준비를 시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 157명의 자기보고서와 그들의 면접 기록 지를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원 자료를 준비하였다. 두 번째는 영역코딩과 중심영역 코딩을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작성한 각 사례의 축어록을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판단하여 사례별로 영역을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사례별 영역과 전체적인 영역 결정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영역들이 결정되었다. 이후 중심영역 코딩(codings of core idea)을 실시하였

다. 이는 영역의 내용을 명료화 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auditing of Domains and Core Ideas)을 실시하였다. 2인의 감사자가 축어록과 평정 팀의 영역/중심개념합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원 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 자료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이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과정이다 [10]. 각 영역에서 유사한 중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 각 사례에 등장하는 빈도(frequency)로 나타냈다. Hill 등[45]는 각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general) 범주와 50% 이상 나타나는 전형적 (typical) 범주들만 나타낼 것을 권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사례에서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일반적(general)'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50%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전형적 (typical)'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질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과 상담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세 가지의 중심 영역인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내용, 가중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영역인 상담의 경우는 내담자, 슈퍼비전, 상담자 역량, 환경 4개의 중심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교차 분석결과 2개의 영역, 7개의 중심영역으로 분리되었으며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학업 스트레스 요인 교차 분석 결과

영역	중심영역	내용	응답빈도
학업	증상	신체	일반적(157)
		심리	일반적(153)
	내용	학업능력	일반적(157)
		종류	전형적(80)
가중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일반적(157)	
	가족 요인	일반적(150)	
상담	내담자	내담자 상담내용	일반적(157)
		내담자 태도	일반적(157)
	슈퍼비전	정서적불편감	일반적(142)
		슈퍼바이저태도	일반적(148)
	상담지역량	상담전문성	전형적(79)
		자질	전형적(81)
환경	장소	전형적(82)	
	비용	전형적(83)	

\*()는 전체 157사례 중 빈도수를 의미

###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증상, 내용, 가중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신체적 불편감과 심리적 불편감, 스트레스 내용으로는 학업능력에 대한 부분과 학업 종류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분되었으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 1.1 증상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공부를 하면서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신체적인 증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범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1.1 신체 증상

참여자1: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 몸이 못 버티고 있는 게 느껴져요. 고장 난 게 느껴지지.”

참여자2: “전체적으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나는 더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받쳐주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체력저하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된다고 하

였다.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체력으로 인하여 공부를 오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다. 즉 체력저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가 보고하였으며, 종류별로 ‘시력저하’, ‘두통’, ‘수면부족’, ‘저림’, ‘근육통’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청소년 혹은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서는 주요하게 드러나지 않는[47]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에게 존재하는 학업스트레스의 특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닌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이다.

##### 1.1.2 심리 증상

참여자 4: 내 나이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죄다 걱정하지 않을까? 압박감, 부담감, 이런 거는 매일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내가 왜 했을까?

중·장년층 이상의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공부를 하면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불편 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불편 감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 증상으로 인한 불편 감의 경우 일반적이긴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다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노년층 초심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공부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감(149)을 동시에 토로하였다. 또한, 걱정(148)과 의욕상실(92), 열등감(100), 회의감(79) 및 불안 초초(60), 두려움(58) 회피저항(58), 경쟁심(61)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 1.2 내용

##### 1.2.1 학업능력(이해력, 압기력, 집중력, 인지력)

참여자21: 읽고 또 읽고 하는데도 안 돼요.

참여자22: 너무 답답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안 외워지니까 시험도 못보고 이번엔 떨어지면 한 상심의 경우는 3번 떨어졌어요. 안 외워져요.

참여자 35: 집중력이 없어.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업능력의 부족을 보고하였다. 공통적으로 학업능력의 부족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중을 하고 싶어도 집중을 할 수 없다'.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의 반응이었다. 특히 이러한 학업능력은 학업의 종류로서 영어, 상담 이론, 발달 이론과 같은 심리학적인 이론과 검사도구 활용,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도구 활용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2 종류(영어와 컴퓨터 심리진단도구)

참여자 54: 아~ 영어가 너무 많아요. 영어 교재를 봐야 하고 논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참여자 62: 전 컴퓨터가 더 어려워요 타자도 한자 한자 봐야하는데.

참여자121: 처음에 축어록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MMPI, WISC, 아직도 몰라 하하하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 영어와 심리진단 도구를 활용하는데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층들이 단순히 상담 공부에 대한 인지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다음은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 1.3 가중요인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경험하는 일반적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 1.3.1 사회, 환경적 요인

참여자 85: 소외되는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돌림 받을까봐 내가 어린애들한테 눈치보고 있을 때.

참여자132: 다 어리니까. 그런데 교수까지 어리더라

고요. 막 질문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참여자128: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기가 죽어요.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처럼 이들은 순수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요인에 대한 반응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 역시 반응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이에 대한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 1.3.2 가족 요인

참여자 100: 아무래도 내가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에만 가면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참여자 122: 사실 이거 때문에 남편하고 여행도 못하고 남편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미안하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위의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기존의 선행연구[15]에서 보고되었던 만 학도들이 상담 공부를 하는 이유와 같았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담 공부를 하는 동안에 가족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상담 공부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상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13][15][21]에서 보고한 초심 상담자들 혹은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을 시작한 중·노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2. 상담 스트레스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 상담자들은 처음 상담을 공부



하면서 동시에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원봉사로 상담을 시작했거나, 이후 전문적으로 학습하면서 실습을 위하여 혹은 자격을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도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상담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내담자, 슈퍼바이저, 개인, 환경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두 전형적, 일반적 빈도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 2.1 내담자

중·노년층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한 것에는 주로 내담자의 상담 내용(157), 내담자의 태도(157)로 나타났다.

참여자 1: 내담자 호소문제가 너무 어려운거예요. 특히 성중독이나 중독, 집안의 병리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하나. 자원봉사로 시작할 때는 그냥 들어주었는데, 상담을 공부하면서는 뭔가 내가 해결해야 할 거 같고 내용이 부담스러워져요.

참여자56: 내담자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내 내담자만 변화가 없지? 다른 사람들 내담자는 잘만 변한다면데 그래서 아, 내가 무능한가? 자원 봉사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뭔가 스스로 계속 비교 하고 있어요.

참여자102: 내담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남 탓만 하고 근데 그걸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자원 봉사할 때는 마음이 이리저리 않았는데 이상해요.

참여자들은 초심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만날 때와 상담을 공부하면서 실습을 할 때와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봉사할 때는 그저 듣기만 했던 내담자들의 상담 내용들이 상담을 공부하면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느껴졌다는 것

이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자원 봉사할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을 공부하면서는 자신의 무능 감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자신이 상담사로서 학습을 하면서 오히려 상담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2 슈퍼비전

이들이 상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상담과정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나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23: 상담 쌤이 당신얘기를 많이 하실 때 짜증이 난다

참여자56: 공감을 해주지 않고 이해 안 된다는 어투로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상하고 분했다.

참여자108: 슈퍼비전 준비 자체가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처럼 이러한 슈퍼비전에서의 불편감과 스트레스는 개인영역으로 전문성, 상담자 자질에 대한 스트레스로 연결 지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 상담자 역량

참여자125: 난 내가 상담을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못하더라고요. 상담을 배우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보니까 자꾸만 해결방법만 찾아주고 싶어 하고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아~ 상담이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참여자135: 상담할 때 안 풀리면 말이 많아요.

위의 참여자들의 표현처럼 중·노년층의 초심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겸하고 있다 보니 본인이 배운 이론과 실천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

이 상담에서 긴장하거나 전문성의 부족이 드러날 때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다.

#### 2.4 사회·환경적 요인

참여자108: 국가기관에서도 상담자에게 무료 봉사를 원할 때

참여자112: 안정적인 장소가 제공되지 않을 때 마땅히 상담을 할 장소가 없을 때

참여자113: 상담기회가 적어요. 나이는 있는데 초심이니 유료 상담을 할 기회가 많지 않죠. 이해는 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사례의 부족을 경험하며, 시간제 상담사인 경우에는 신분에 대한 안전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김건숙외[15]와 조남정 외[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상담을 통해 얻는 경제적 수입의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직업으로서 상담은 봉사와는 다른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13][15][16]에서 상담사들의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상담공부를 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 상담자들이 상담 분야에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으며, 분석결과 총 2개의 영역과 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상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학업스트레스는 신체 노화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체 증상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하여 상담 공부를 시작한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끼게 하였다. 또한, 상담 학업 시에 필요한 영어교재와 컴퓨터 사용은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인 중·노년층 여성 상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이는 하경분, 송선희[48]의 연구에서 중·노년층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있어서 청소년이 학업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과는 다르게[48] 중·노년층 초심 여성 상담자들에게는 스트레스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성 상담자들 중 기혼 여성인 경우에, 그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초심 여성 상담자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자녀의 하교 시간, 배우자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더불어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 수련을 받으면서 지불되는 비용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자녀나 가정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이 자신의 학비로 사용된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을 지속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는, 김건숙외[15]와 유성경과 박성호[13]의 연구의 결과 상담자들의 스트레스는 곧 상담자에게 소진을 일으켜 상담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향후 중·노년층 초심 여성 상담자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은 신체증상으로 오는 물리적 한계, 학업을 하다보면 경험하게 되는 가족과의 갈등과 역할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적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중·노년층의 여성 초심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역에는 ‘내담자’, ‘수퍼비전’, ‘상담자 역량’, ‘사회 환경적 요인’의 4가지였다. 이는 기존에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척도를 개발한 차영은[49]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들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해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상담 내용에 불편감과 이로 인한 수용적이지 못한 자신의 태도와 사고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의 문제는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곧 상담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과 상담자 자질을 연결지어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노년층의 초심상담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상담자 역량을 수퍼비전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초심 상담자들은 때로는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는 경험을 한다[43].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는 경험은 중·노년층 상담자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수퍼비전이 상담자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50]와는 다르게 수퍼비전에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노년층 여성 초심 상담자들에게 교육기관 혹은 상담센터에서는 학습 비용과 진로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초심상담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상담 학습 과정과 상담실제에 있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노년층 초심 상담자들이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학습 도구 활용과 학습방법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노년층의 초심 상담자들이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학습과 관련한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좌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 학업도구 활용이나 상담실습과정과 비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직업인으로서 상담자와 자원봉사자로서의 상담자가 경험

하거나 고려되는 영역의 다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노년기에 상담을 접하고 상담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의 여성 상담자들에게 상담 분야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상담자로 성장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남성 초심상담자들의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남성 상담자들은 여성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어려움과는 다른 영역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51]. 따라서 초심 상담자들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를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상담에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영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중·노년층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업과 상담실제라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영역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록 ‘드문’ 반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년층에서만 보고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중·노년층 초심상담자들에 대한 이해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상담 교육기간이 아닌 상담 기간과 상담을 교육받았던 기간이 혼용되어 설문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연구 대상 표집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에게 상담을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경험하는 상담과 학업 스트레스 부분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이들에게 좌절이나 소진의 부분이 어디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실제 상담교육현장에서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들이 전문 상담자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과 지지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증가할 중·노년층

의 여성 초심상담자들의 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 상담 교육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94044&themaId=A#A41.2](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94044&themaId=A#A41.2)
- [2] 윤홍식, 김광혁, “여성과 남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제24권, pp.89-116, 2006.
- [3] 구명숙, 홍상욱,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53-167, 2005.
- [4] 이상희, 김정희, “중년기 여성의 학습자 특성, 참여동기, 학습만족도 및 평생교육 참여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제22권, pp.149-178, 2016.
- [5] 홍석태, 양혜술,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pp.287-299, 2008.
- [6] 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서연옥, “중년여성의 자아실현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pp.602-611, 2002.
- [7] 한준상, “신고령사회 노인교육의 패러다임,” *Andragogy Today*, 제5권, pp.1-21, 2002.
- [8] 한석태,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pp.441-461, 2008.
- [9] E. H. Erikson and J. M.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W Norton & Company, 1998.
- [10] C. E. Hill, S. Knox, R. E. Crook-Lyon, S. A. Hess, J. Miles, P. T. Spangler, and S. Pudasaini, “Dreaming of you: Client and therapist dreams about each other during psychodynamic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Vol.24, No.5, pp.523-537, 2014.
- [11] 이보람, 이정화,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경험과 몰입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3호, pp.349-361, 2014.
- [12] M. S. Corey, G. Corey, and C. Corey, *Groups Process and practice*, Cengage Learning, 2013.
- [13] 유성경, 박성호,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2호, pp.389-400, 2002.
- [14] 남순현, “노인이 지각하는 발달단계별 일의 의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0권, pp.113-147, 2015.
- [15] 김건숙, 조남정, 최은미, 하혜숙, “상담전공 만학도의 학부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775-799, 2013.
- [16]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상담전공 학부생의 교육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3호, pp.303-324, 2015.
- [17]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 [18]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실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제7권, 제1호, pp.83-101, 2004.
- [19] 김계현, 문수정,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18, 2000.
- [20] 최광현, “노년기 분노현상과 노인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 pp.169-190, 2006.
- [21] 신민주, 주용국, “문화센터 평생교육 참여 여성 노인의 대인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 논총, 제43권, pp.285-300, 2009.
- [22] V. G. Lewis and L. D. Borders, “Life

- satisfaction of single middle-aged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4, pp.94-100, 1995.
- [23] 김애순, “알과겉 모두 알파우먼이 될 수 있을까?,” *여성연구논총*, 제7권, pp.25-43, 2009.
- [24] 조진희, 김분한,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우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59-266, 2012.
- [25] E. H. Erikson and J. M.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W Norton & Company, 1998.
- [26] 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서연옥, “중년여성의 자아실현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pp.602-611, 2002.
- [27] 박금자,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8권, 제2호, pp.232-243, 2002.
- [28] A. C. King, C. Castro, S. Wilcox, A. A. Eyler, J. F. Sallis, and R. C. Brownson,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inactivity among different racial - ethnic groups of US middle-aged and older-aged women,” *Health psychology*, Vol.19, No.4, p.354, 2000.
- [29] 김의진, 김종순, “고학력 중년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pp.128-129, 2015.
- [30] 최희경, 김승희,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가족 내 역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269-295, 2012.
- [31] 박지선, 성미애, “중년기 기혼 여성의 학업동기 유형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pp.53-64, 2008.
- [32] 김승용, 고기숙, “지역사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5권, pp.51-73, 2008.
- [33] 임현순, 주은선, “신체화 경향이 있는 중년여성들의 포커싱 활용 교육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 제3호, pp.225-251, 2015.
- [34] 이은진, 이문희, “초심상담자의 자기문제 이해 및 극복과정,” *상담학연구*, 제16권, 제3호, pp.1-24, 2015.
- [35] 유성경, 손난희, 김창대, 홍세희, “상담자의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Korea Journal*, 제10권, 제4호, pp.1873-1889, 2009.
- [36] 이수림, 조성호, “상담자 발달과 지혜에 관한 연구: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상담자의 지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pp.69-91, 2009.
- [37] R. B. Pipes and D. S. Davenport, *Introduction to psychotherapy: Common clinical wisdom*. Allyn & Bacon, 1999.
- [38] M. H. Rønnestad and T. M. Skovholt,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0, No.1, pp.5-44, 2003.
- [39] 최윤미,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179-200, 2003.
- [40] 김길문, 정남운,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1-20, 2004.
- [41] 손유미, 정남운, “초심상담자와 내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 pp.523-545, 2005.
- [42]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 pp.75-90, 2005.
- [43] 이승은, 정남운,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3호, pp.441-460, 2003.
- [44] R. S. Lazarus,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4, No.1,

pp.1-22, 1993.

- [45]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utt-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5, No.4, pp.517-572, 1997.
- [46] 김미라, 정남운,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1호, pp.201-216, 2006.
- [47] 박병기, 박선미,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2호, pp.563-585, 2012.
- [48] 하경분, 송선희,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78-289, 2013.
- [49] 차영은, *초심상담자 어려움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0] 고윤희, 박성현,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4호, pp.805-839, 2014.
- [51] J. Barry, L. Liddon, R. Kingerlee, and M. Seager, "More male psychologists?," *PSYCHOLOGIST*, Vol.29, No.6, pp.415-415, 2016.

저자 소개

김진옥(Jin-Ok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일반상담학과(상담학석사)

<관심분야> : 영성, 상담, 교육

정문주(Moon-Joo Cheong)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 교육학, 상담심리